

오제 국립공원의 탄생

오제 지역은 원래 1934년에 일본에서 네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낫코 국립공원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2007년 8월에 분리·독립하여 ‘오제 국립공원’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에서 29 번째 국립공원이 되었으며, 범위는 아이즈코마가타케 산과 다시로야마 산 주변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정확히 간토 지방과 도호쿠 지방의 경계에 있으며, 도쿄에서 불과 1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사람이나 캠핑을 하는 사람, 등산객에게 인기가 있는 여행지입니다.

오제 국립공원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자연보호 활동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한때 오제가하라를 수몰시켜 발전용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건설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외의 활동으로는 공원 내로 이어지는 도로 개발 저지와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